

이 끼 바 위 쿠 르 르

ROCK ISLAND
가꾸고
사.는
ROCK
SUN

A

SJ

2024. 12. 3. -
2025. 1. 26.

C

시각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고결, 김중원, 조지은)의 이번 전시는 미륵에서 출발합니다. 미륵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로서 동학, 불교, 무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풍경 속에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륵 조각상들은 사찰 주변에서 잊혀지거나, 마을 어귀와 들판 속에서 방치된 채 버려진 돌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축사 옆이나 태양광으로 가득 찬 폐교에서 발견되는 미륵은 돌뫼를 벗어난 존재로서 오히려 생동감을 발현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러한 역설에 주목하며, 미륵이 있는 풍경과 우리가 포함된 풍경에 관한 신작 필름과 조각 작품인 〈거꾸로 사는 돌〉을 통해 “과거를 살아내는 돌”로서 미륵을 재조명합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미륵은 단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근대성에서 추구하던 속도를 벗어나 자연과 연결된 고유한 속도로 회복하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미륵을 통해 산과 바람, 하늘과 땅과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하며, 전통적인 동아시아 산수화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살아가는 방식을 은유하는 차경(借景)의 개념을 상기시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미륵은 우리에게 버려짐을 통해 오히려 풍경 속에 깊숙이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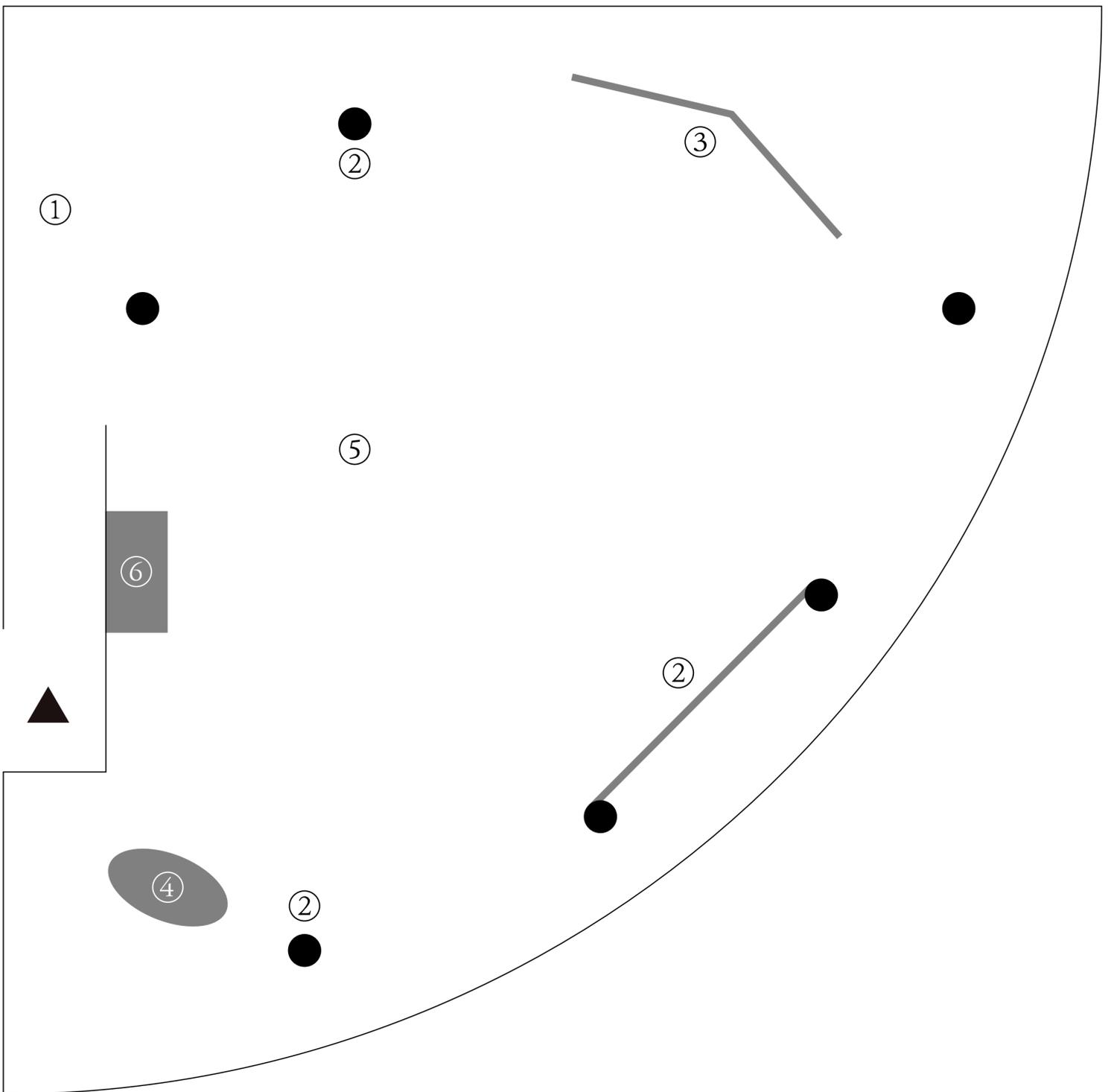
〈더듬기〉작업은 차갑고 단단한 석상을 솟으로 더듬으며 작가들이 미륵을 만지고 느꼈던 경험을 전달합니다. 이는 소외된 풍경과 조각에 대한 감각적

접속을 불러일으키며, 일상에서 잊힌 미술의 존재감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더듬기>는 이끼바위쿠르르가 더듬어간 석상의 굴곡과 흔적을 남기고, 육안으로는 평면적으로 보이는 미륵의 실상이 사실 매우 드라마틱한 덩어리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섬세함은 시각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이며, 덩어리의 연속적 흐름을 통해 그 관계와 형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닻음과 멀어짐이 교차합니다. 작가들이 더듬었던 것은 단순히 석상의 몸체가 아닌, 그와 얽힌 시간의 결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륵을 손으로 더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방치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쓰레기와 춤을>이라는 비디오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먼지와 쓰레기들이 폐허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담아내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지 속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를 환기시키며, 우리에게 함께 존재함의 의미를 묻습니다.

《거꾸로 사는 돌》은 우리가 속한 일상의 풍경을 돌아보며, 버려진 돌과 버려진 풍경 속에서 “과거를 살아내는” 미륵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륵처럼 “버려지는 용기”를 가질 때, 생태적 풍경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스페이스 2(3층)



1. 〈부처님 하이파이브〉, 2024, 시멘트, 철,
38×19×70cm
2. 〈더듬기〉, 2024, 한지에 숯, 15점, 420×140cm,
390×95cm, 390×95cm, 210×140cm, 195×95cm,
145×175cm
3. 〈거꾸로 사는 돌〉, 2024, 2채널 비디오, 4K,
사운드, 10분 50초
4. 〈거꾸로 사는 돌〉, 2024, 혼합 매체, 고무판,
170×140cm
5. 〈우리들의 산〉, 2024, 혼합 매체, 105×255×141cm,
96×165×74cm, 78×70×30cm
6. 〈쓰레기와 춤을〉, 2024, 단채널 비디오, 4K,
사운드, 3분 20초

1. <부처님 하이파이브>

2024, 시멘트, 철, 38×19×70cm

다섯 손가락을 모두 곧게 세운 손바닥이 관람객을 마주합니다. <부처님 하이파이브>의 손 모양은 보살의 깨달음을 손으로 상징해 표현하는 수인(手印) 중, 시무외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무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와 같은 손의 형태를 상대방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의 행위와 연결합니다. 손이 잘린 미륵의 석상에서 비롯된 <부처님 하이파이브>는 미륵의 잃어버린 손이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전시장에 불시착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손뼉을 마주 부딪쳐 상대방과 서로 공유된 감정을 나누듯, 부처의 손을 눈으로 마주하며 ‘거꾸로 사는 돌’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2. <더듬기>

2024, 한지에 숯, 15점, 420×140cm, 390×95cm,

390×95cm, 210×140cm, 195×95cm, 145×175cm

<더듬기>는 석상 위에 한지를 덧대고 숯으로 더듬어 문지른 드로잉입니다. 16점의 드로잉으로 구성되어 있는 <더듬기>는 그 거대한 크기로 인해 한눈에 담기 어려운 석상의 손과 귀, 의상의 세밀한 요소들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한지에 베껴진

숯의 흔적은 미륵을 훑고 어루만진 결과로, 석상의 재료인 화강암의 요철로 인해 그 무늬가 섬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흑색으로 도드라지게 표현된 손의 주름과 깃바퀴의 모양, 의상의 굴곡, 온화한 표정은 미륵상을 촉각적으로 보게 합니다. 미륵을 눈으로 더듬어 따라가며 종교적 존재와의 접촉을 상상하게 됩니다.

3. 〈거꾸로 사는 돌〉

2024, 2채널 비디오, 4K, 사운드, 10분 50초

4. 〈거꾸로 사는 돌〉

2024, 혼합 매체, 고무판, 170×140cm

미륵보살은 석가모니가 입멸한 뒤 56억 7천만 년이 되는 때 인간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교화시키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에 출현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반영된 미륵신앙은 현실에 지친 민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까닭에 미륵석상은 오래전부터 마을 곳곳에 퍼져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미륵불이 남아 있는 장소는 수도권 외곽, 논과 밭, 시골과 같은 도시 개발이 다다르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미륵 조각상을 찾아다니며 발견했던 풍경들을 원경으로 포착하며 장면을 산수화처럼 표현합니다. 작품은 현실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풍경에 녹아든 불상의 모습에서

미륵이 지닌 생동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가는 논밭 위에 자리한 석상을 본떠 제작한 설치 작품 〈거꾸로 사는 돌〉을 전시장 한편에 위치시킵니다. 큰 콧방울과 휘어진 눈, 부드러운 표정과 거대한 얼굴은 친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전시장 전체를 “과거를 살아내는 돌”이 있는 풍경으로 변모시키기를 시도합니다.

5. 〈우리들의 산〉

2024, 혼합 매체, 105×255×141cm, 96×165×74cm, 78×70×30cm

〈우리들의 산〉은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들이 만들어 낸 풍경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거대한 산속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정경을 이루는 기암과 괴석을 지점도와 먹을 활용해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석산의 모습은 이끼바위쿠르르가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는 동양화의 산수 개념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산수에서 인간은 이미 자연 속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이 보여주는 정경은 생태와 자연이 그것을 보는 사람과 언제나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산〉은 작가가 미륵 석상이 버려지거나 잊혀진 채로 놓인 풍경을 찾아다니며 얻은 깨달음을 잘 보여줍니다.

6. <쓰레기와 춤을>

2024, 단채널 비디오, 4K, 사운드, 3분 20초

<쓰레기와 춤을>은 부도로 인해 폐허가 된 장소를 배경으로 쓰레기가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한 작품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명력과 기능을 다한 폐건물과 사물은 주인공이 됩니다. 사운드에 맞춰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쓰레기들의 모습은 작가가 발견한 미륵상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버려지고 잊힘으로써 풍경에 스며든 존재들이나 것입니다. 이끼바위쿠르르리는 방치되고 버려진 존재들로부터 생태적 풍경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r)

이끼바위쿠르르는 고결, 김종원, 조지은으로 구성된 시각 연구 밴드다. 그룹의 이름은 이끼가 덮인 바위를 뜻하는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를 의미한다. 땅과 공기 사이의 좁은 경계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이끼의 모습을 작업의 태도에 반영한다. 이끼바위쿠르르는 농부, 해녀, 학자 등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 삶의 방식을 통해 식물, 자연현상, 인류, 생태학을 배운다. 그리고 작가는 자생하는 동시에 경계를 넓혀가며 생태의 일부가 되어가는 열대와 해초에 주목하고 그 현상에 관해 탐구한 바 있다.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그림자의 형상들》(비엔나 제체시온, 2024), 《Breath(e): Toward Climate and Social Justice》(해머 미술관, 2024), 《연안의 기록들》(영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Sending Love during Uncertain Time》(엠펙플러스, 2024), 《노란 기억》(식민지역사박물관, 2023), 《이것 역시 지도》(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3),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제14회 광주비엔날레, 2023), 《Lumbung》(카셀 도큐멘타 15, 2022) 등이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퍼포먼스

〈브링 미 위드 유(Bring Me with You)〉

일시: 2024. 12. 3. (화) 16:00, 12. 7. (토) 14:00

장소: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2

퍼포머: 아구스 누르 아말

아티스트 토크: 이끼바위쿠르르

일시: 2024.12.14. (토) 16:00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도슨트 프로그램

일시: 전시 기간 내 화요일-일요일 오후 2시, 4시

소요시간: 40분

신청방법: 현장 접수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2024. 12. 3. - 2025. 1. 26.

기획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김지나(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프로젝트 디렉터)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전시 서문

문지윤(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입장료

10,000원(25세-64세)

7,000원(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진행 보조

유승아(아트선재센터 인턴)

5,000원(9세-18세)

무료(그 외 연령 및 장애인,

그래픽 디자인

신덕호

ICOM·CIMAM·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주최

아트선재센터

© 2024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F. 02 733 8377

W. www.artsonje.org

A

SJ

C